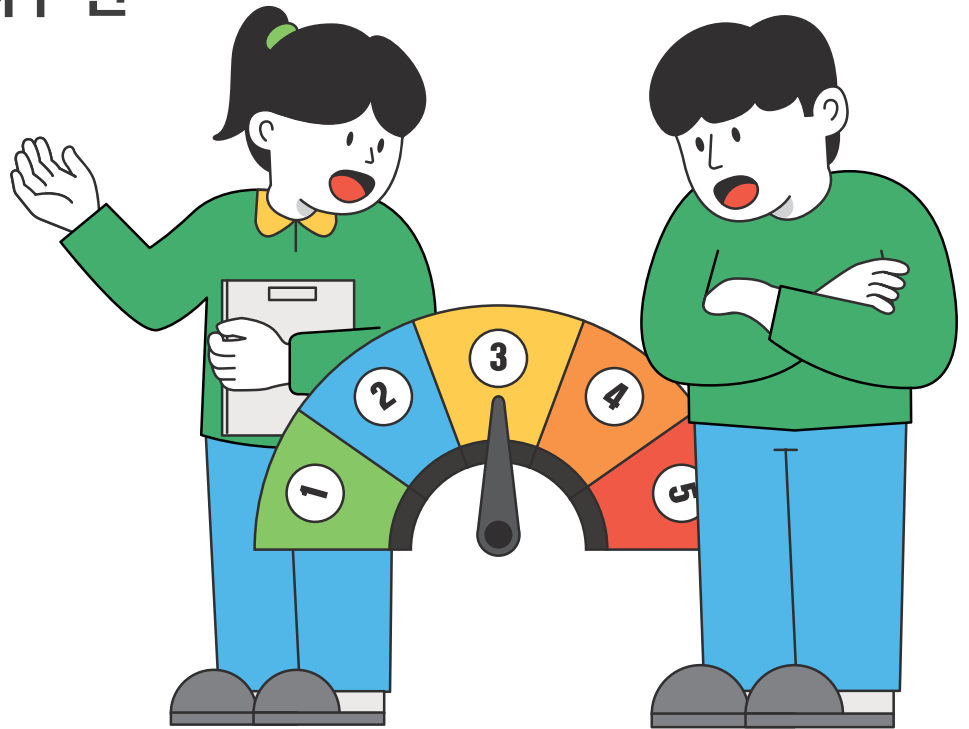


대전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Vol. 01 지역안전지수 편



CONTENTS

지역안전지수가 궁금해요!

- SAFETY Q&A 00

대전시 구별 지역안전지수 및 핵심지표 현황

- SAFETY GRAPHIC 02 04

도시의 안전을 가리키는 '나침반',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 SAFETY TIP 10

지역안전지수를 올리기 위한 도시안전 컨설팅 사업

- SAFETY CHECK 01

대전세종연구원 이형복 前도시안전연구센터장

- SAFETY INTERVIEW 01 06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지역안전지수

- SAFETY CASE 12

한 눈에 살펴보는 대전시의 지역안전지수

- SAFETY GRAPHIC 01 02

국립재난연구원(NDMI) 안전연구실 지역안전연구팀 박소연 시설연구사

- SAFETY INTERVIEW 0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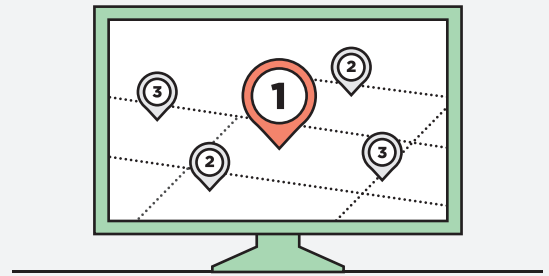
지역안전지수가 궁금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을 가리키는 나침반, '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별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등급인데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이 받은 등급의 의미는 무엇인지 시민들이 궁금해할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Q 지역안전지수는 언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매년 12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 및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지역안전등급을 공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 업무안내 ▶ 안전정책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www.ndmi.go.kr
- 생활안전지도 www.safemap.go.kr ▶ 생활안전지도 ▶ 지역안전지수 등급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등 6개 분야에 대해 특·광역시/도, 시/군/구 지역별로 확인 가능)



Q 우리 지역이 받은 등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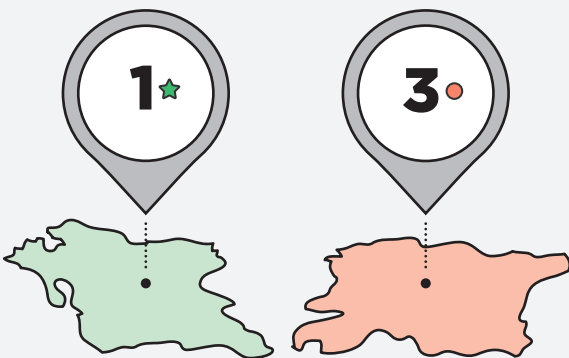
A 지역안전지수는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Q 지역안전지수 등급은 절대등급인가요, 상대등급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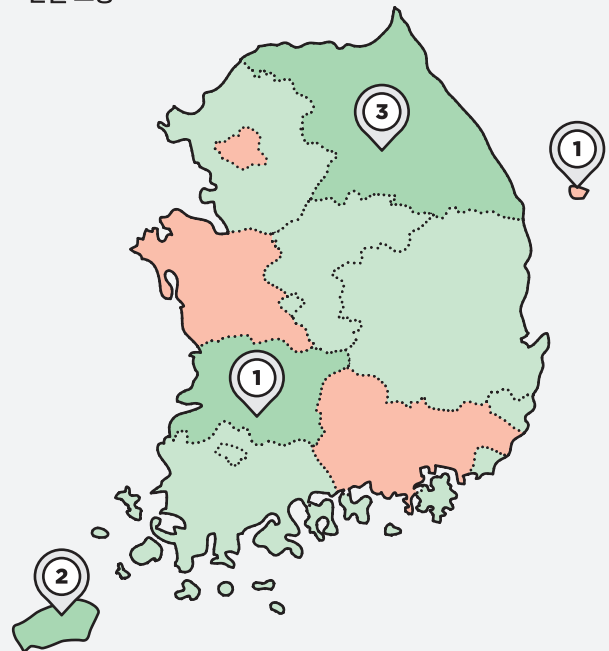
A 지역안전지수는 산출 모형에 각 지표 값을 투입하여 나온 결과로 각 특·광역시/도, 시/군/구별 상대등급으로 산출합니다.

숫자 특·광역시/도, 시/군/구 5개 비교 그룹 내에서 해당 연도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 (1등급일수록 안전)

- ★ 전년대비 등급 상승 수
- 전년대비 등급 상승은 없지만 위해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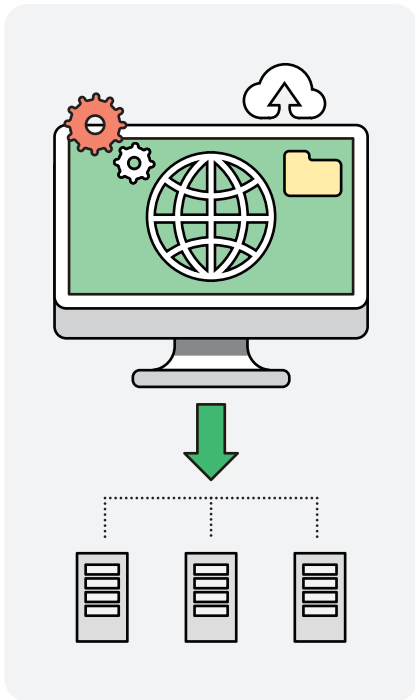


지역안전지수 산출 모형



보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도시안전 컨설팅 사업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시는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도시안전 컨설팅 사업입니다.



1.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협업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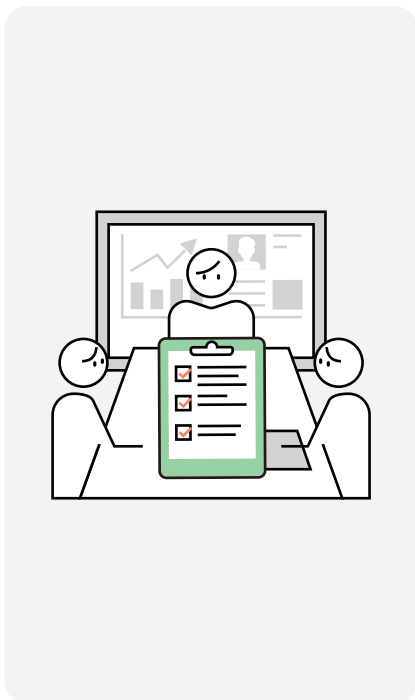
• 사업 개요

- 대전시 지역안전지수 개선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인력풀 구성과 협업 체계 구축
- 통계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전시 지역안전현황 분석 및 DB 구축, 지역안전지수 기반의 통계 분석 수행

→ 향후 알기 쉬운 대전 안전 DATA로 시민에게 제공

• 사업 추진 계획

구분	주요 내용	수행 기간
안전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지역안전지수 및 재난안전산업 분야와 연계한 안전 전문가 인력풀 확보 - 주기적 신규 전문가 발굴 및 전문가 활용 우수사례 발굴·표창	정기적 관리



2. 취약한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 사업 개요

- 자치구의 효과적 안전역량 개선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우선 수행
-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가 진행해 온 컨설팅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여 대전시 및 5개구에 대한 취약한 지역안전지수 맞춤형 개선사업을 제시

• 사업 추진 계획

- 지역안전지수는 대전시청만의 개선 계획으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취약한 기초자치단체(5개구)의 컨설팅 지원
- 5개구의 취약한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수행하여 지역 맞춤형 안전개선사업 연계·발굴(구성하는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
- 전문가 안전진단 결과, 취약한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맞춤형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한 개선 대책 제안

→ 향후 분야별 전문가 DATA BASE 매칭 시스템 구축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한 눈에 살펴보는 대전시의 지역안전지수

지역안전지수는 한 도시의 안전을 한 눈에 짚어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우리 지역의 안전 중 취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은 관심을 갖고 돌볼수록 튼튼해지는 만큼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대전시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2년 대전시 지역안전지수 (2021년 통계 기준)

교통 안전지수



화재 안전지수



범죄 안전지수



생활안전 안전지수



자살 안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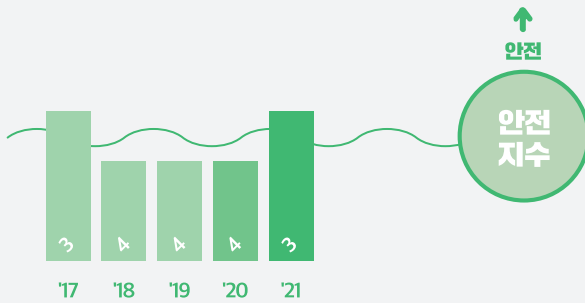
감염병 안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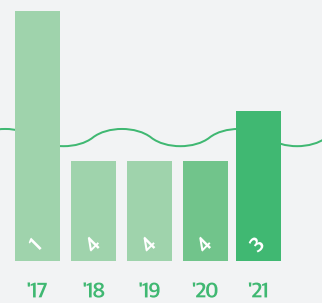


대전시 지역안전지수 5개년(2017년~2021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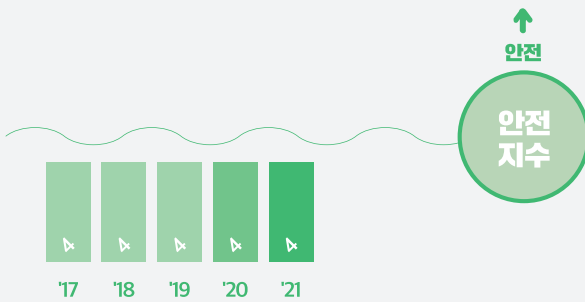
교통 안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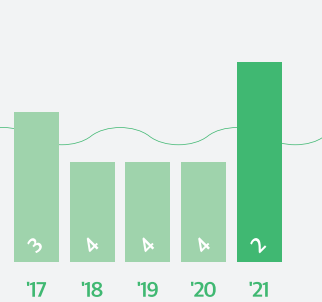
화재 안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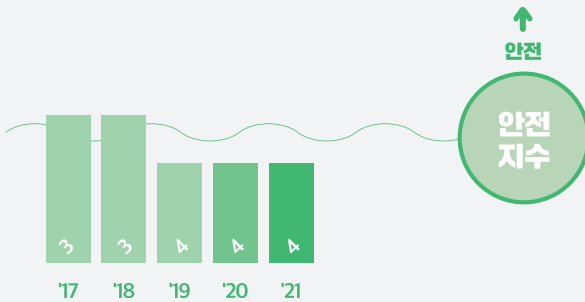
범죄 안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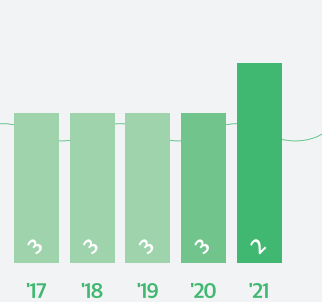
생활안전 안전지수



자살 안전지수



감염병 안전지수



* 2016년 ~ 2020년 통계 기준

*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대전시 구별 지역안전지수 및 핵심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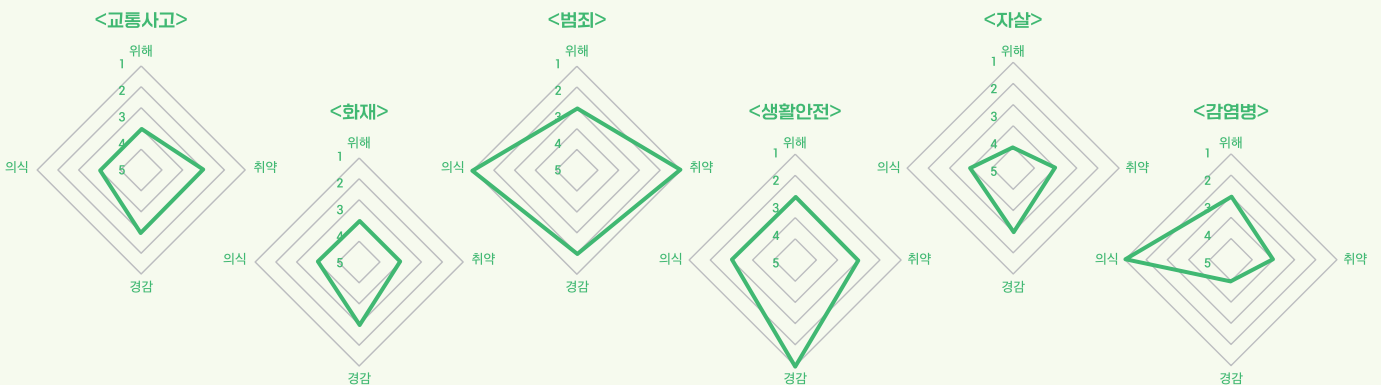
2022년 지역안전지수 가운데 기초 자치단체 47개 지역(시 8개, 군 26개, 구 13개)은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5개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된 대전 동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구별 지역안전지수의 등급 개선이 대전시 전체의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별 지역안전지수와 핵심지표 현황을 살펴봅니다.

2022년 동구 지역안전지수(2021년 통계 기준)

동구는 최근 5년치 평균으로 봤을 때 모든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교통·화재·생활안전·감염병 분야에서 등급이 상승했으나 자살 분야에서 등급이 하락했다.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4	3	2	2	5	3

* 분야별 산출지표 및 유형별(위해·취약·경감·의식)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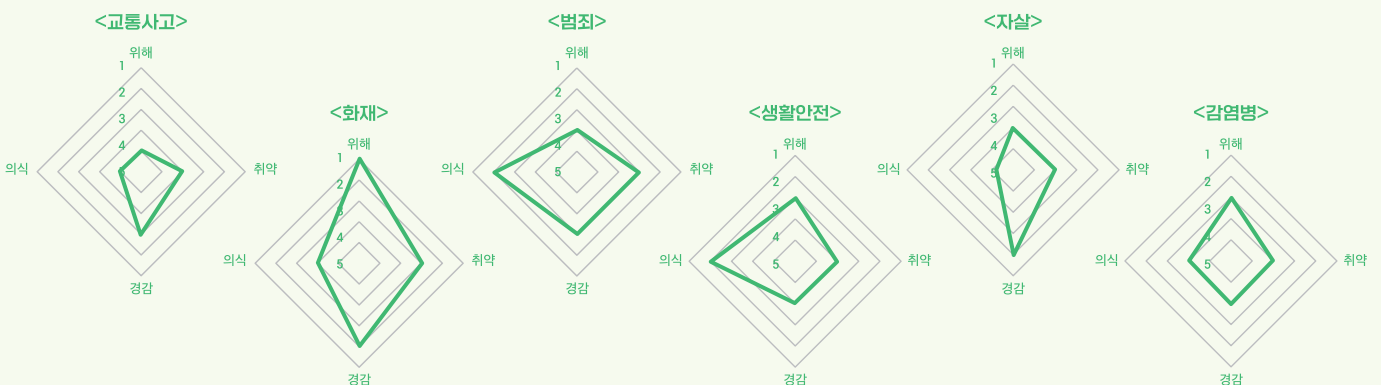


2022년 중구 지역안전지수(2021년 통계 기준)

중구는 최근 5년치 평균으로 봤을 때 모든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범죄 분야, 자살 분야에서 등급이 상승했으나 교통 분야에서 등급이 하락했다.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4	3	3	4	4	3

* 분야별 산출지표 및 유형별(위해·취약·경감·의식)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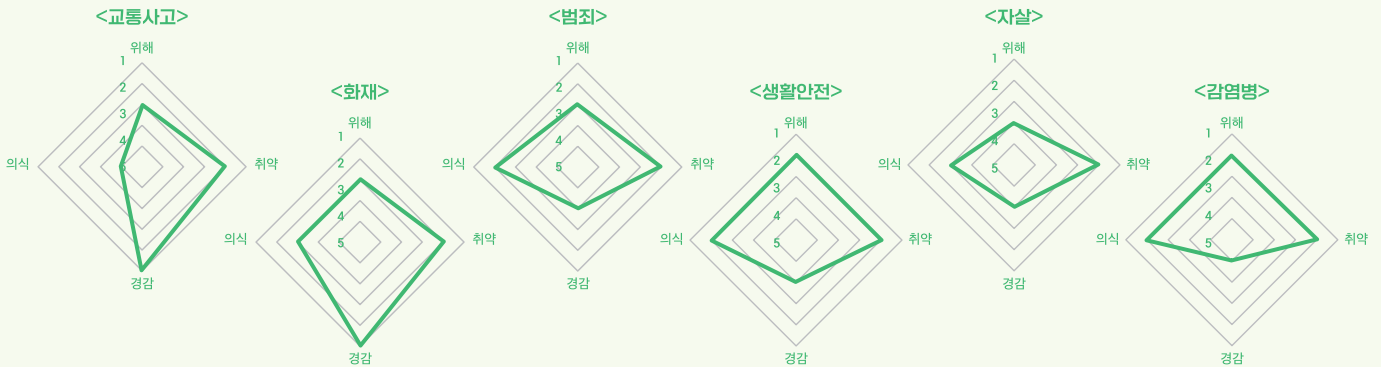


2022년 서구 지역안전지수(2021년 통계 기준)

서구는 최근 5년치 평균으로 봤을 때 범죄 분야, 자살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화재 분야에서 등급이 상승했고, 생활안전 분야에서 등급이 하락했다.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2	2	3	3	3	2

* 분야별 산출지표 및 유형별(위해·취약·경감·의식)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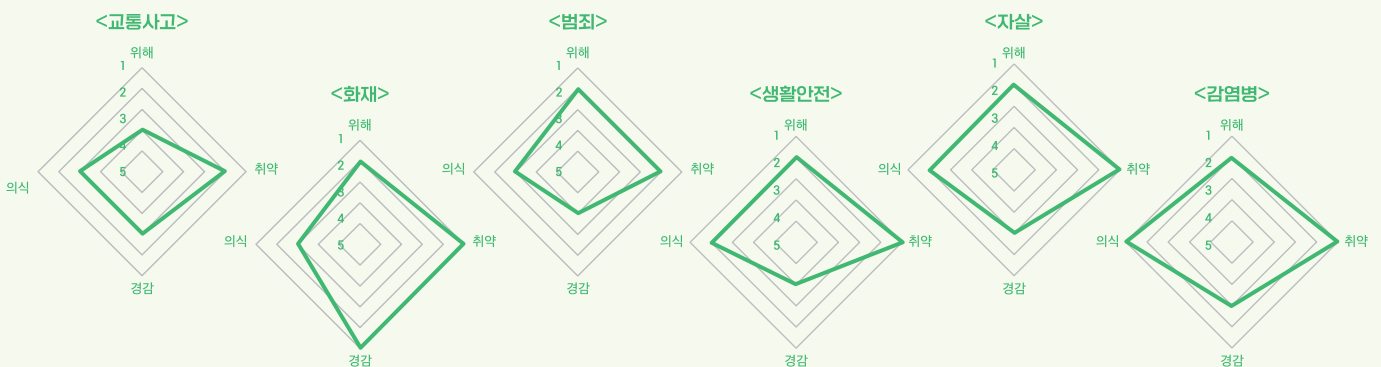


2022년 유성구 지역안전지수(2021년 통계 기준)

유성구는 최근 5년치 평균으로 봤을 때 화재 분야, 생활안전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교통 분야, 범죄 분야, 자살 분야, 감염병 분야에서 등급이 하락했다.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3	2	3	3	2	2

* 분야별 산출지표 및 유형별(위해·취약·경감·의식)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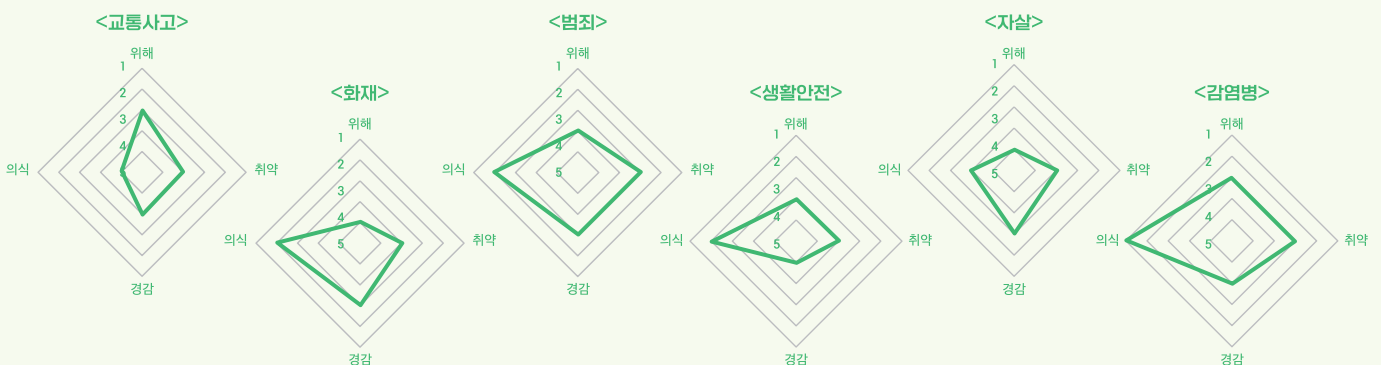


2022년 대덕구 지역안전지수(2021년 통계 기준)

대덕구는 최근 5년치 평균으로 봤을 때 모든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최근 범죄 분야, 감염병 분야에서 등급이 상승했다.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4	4	3	4	5	2

* 분야별 산출지표 및 유형별(위해·취약·경감·의식) 등급





INTERVIEW 01 | 대전세종연구원 이형복 前도시안전연구센터장

안심하고 살고 싶은 도시, 대전

현대인들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일상 전반에 도사리고 있는 사고들까지... 산다는 건 어쩌면 불행한 사고로부터 운 좋게 살아남는 일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잘못됨이 없이 편안한 상태를 지속하는 일, 안전(安全)! 지금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 곳에 머물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형복 前도시안전연구센터장과 함께 대전광역시 지역안전지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이윤숙 (이하 이 작가) | 안녕하세요? 먼저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형복 (이하 이 박사) |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세종연구원 前도시안전연구센터장 이형복입니다.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도시안전연구센터를 이끌어 와서 그런지 더욱 애정이 있으며, 현재는 센터장에서 물러나 한 명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일명 나영이 사건을 접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걸 계기로 도시안전 전 분야의 연구를 이어온 것 같습니다.

이 작가 |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에 앞서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박사 | 행정안전부에서는 2015년부터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로 전국 지자체의 안전 수준 등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계량화하여 발표하고 있는데요.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주민의 법규 준수, 생활안전 응급처치 교육 참여 등과 같은 안전의식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와 산식을 개선하여 종합진단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이 작가 | 그럼 공표된 지역안전지수를 보고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을 평가해도 무방할까요?

이 박사 | 지역안전지수는 지역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00% 지표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기 지역의 지역안전지수를 보면서 관련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좋은 안전개선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이 작가 | 지난해 대전시의 지역안전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박사 | 작년은 안타깝게도 6개 분야 중 생활안전 분야만 빼고 모두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살 분야 같은 경우,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저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다 보니 타 지자체에서 얼마만큼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고, 또, 얼마나 사망자 감소를 위해 어떠한 시책을 시행했는지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분석해 봐야 대전시의 위치를 명확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지표 중에서 안전의식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대전시 지역안전지수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작가 | 6개 분야 중 자살 분야가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 박사 | 분석연구를 통해서 명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살의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경찰은 자살인지 타살인지만 파악하지 자살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알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인 파악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그 후속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관계기관을 늘려가는 일에 집중해야겠죠. 자살분야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까 아닌 것은 결과가 확연히 다르거든요.

이 작가 | 2015년부터 발표한 지역안전지수를 살펴보니 자살 분야의 경우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이 박사 | 대전시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과거 충남의 경우, 고령자의 자살 사례가 증가해 여기에 예산을 집중 투자했는데요. 대전시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대면활동이 줄고,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다 보니 상대방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작가 | 그런데 대전 동구의 경우 6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노력이 있었을까요?

이 박사 | 대전시 동구에서는 도시를 다시 개발하고 건축하는 일이 늘면서 생활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범죄예방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범지역 111곳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분야에서 2021년 대비 2등급이 올랐고, 대전 5개 구 가운데 범죄분야가 제일 높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의 노후 CCTV 시설 개선과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 등의 노력이 긍정적인 성과 지표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전시 동구 CCTV 확대설치 (동구 가오초등학교 앞)

이 작가 |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살펴보면 대전시의 경우 지난 8년간 개선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박사 | 타 지자체를 비교해 말씀드리다면 경기도의 경우 실제 사고 발생률은 높는데 지역안전지수 상에는 비교적 안전한 도시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지역안전지수 산출시 인프라 구축 부분에 있어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기성 시가지 내에 새롭게 들어오는 인프라가 적다보니 계속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기도는 인구증가로 대단위 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주택을 계속 짓다 보니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시설들이 증가하면서 지표상에 대전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안전지수는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안전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전시민들은 대전이란 도시가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 작가 | 앞으로 지역안전지수를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전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박사 |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살이나 범죄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로 그 원인을 규명해 내야 하고요. 이 지역안전지수는 사망·사고 발생결과인 위해지표와 위험과 재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인 취약지표, 그리고 위해를 감소시키는 지자체의 노력인 경감지표, 마지막으로 주민의 노력인 의식지표를 토대로 산출이 되는데요. 지표별로 세심히 들여다보고 대책 마련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 안전개선 타워조명 설치(대전 용전네거리 교차로)

이 작가 | 마지막으로 대전시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박사 | 지역안전지수라는 지표만으로 도시의 안전을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지표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는 이유는 지역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이 평가 방법을 2015년부터 도입해 꾸준히 이어온 만큼 시민들과 함께 지표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겠고요. 먼저, 행정이 선두에 서서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취재 | 이윤숙 (프리랜서 작가) 사진 제공 | 대전세종연구원



INTERVIEW 02 | 국립재난안전연구원(NDMI) 안전연구실 지역안전연구팀 박소연 시설연구사

안전해서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하여

지역안전지수는 안전과 관련된 주요 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등급을 말합니다.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사업 등 자율적 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매년 12월에 공표되고 있으며, 누구나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역안전지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NDMI)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지역안전연구팀의 박소연 시설연구사 겸 도시계획박사를 만나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이윤숙 (이하 이) | 안녕하세요? 먼저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소연 시설연구사 (이하 박)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안전 한국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즉,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지역안전연구팀은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안전지수 산출과 지자체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 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박 |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0(안전지수의 공표)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연말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주요 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별 각각 5개 등급으로 진단한 결과입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로 상대적 등급으로 공표하여 지역안전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심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사고 사망자 등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감축하여 지자체 안전수준을 개선하고 안전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 지역안전지수는 1~5등급으로 구분된다고 알고 있어요. 지역안전지수 등급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박 | 안전등급은 1~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등급은 도시 및 농촌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그룹별 지역안전지수를 계산하여 부여합니다. 특광역시와 군지역 등 그룹이 다른 지역 간 등급을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데, 결론적으로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광역시/도, 시/군/구 그룹별 안전관리 역량, 인프라, 행정체계 등은 그 수준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광역시/도, 시/군/구가 자체 그룹별 등급 비율은 분야별 표준편차(집단의 각 변수 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로 부여하였습니다. 지역안전지수 등급은 어떤 지자체든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 그렇다면 산출된 지역안전지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박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8차례 지역안전지수가 공표되었는데, 초반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내가 사는 지역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지수 공표 초기에는 업무 담당자들의 문의가 많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지역안전지수를 접하면서 최근에는 시민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위험환경 등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안전신문고'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지역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자연스럽게 지자체장이 지역 안전 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 2022년 지역안전지수가 개편되었다고요. 왜, 어떻게 개편되었을까요?

박 | 2015년부터~2021년까지 기존의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는 위해, 취약, 경감 3개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나, 2022년부터 안전의식을 반영하여 4개 부문인 위해, 취약, 경감, 의식지표를 개편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지수와 관련하여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모두 진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사고의 50% 이상이 개인 부주의로 발생(최근 5년 간 화재 발생 원인 중 부주의 화재 50.7%, 교통사고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55.8%)한 점을 고려하여 지수 체계에 안전의식 개념 반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지역안전의식수준 측정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계획보다 1년 먼저 개발이 완료되어 2022년부터 안전의식이 반영된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매년 지역의 안전수준을 진단·공표하고 있었던 지역안전지수는 주민의 안전의식까지 측정할 수 있는 종합진단 체계로 개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우리 도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박 | 지역안전지수는 지역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지역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 빚대어 설명드리면 우리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나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취약하거나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를 받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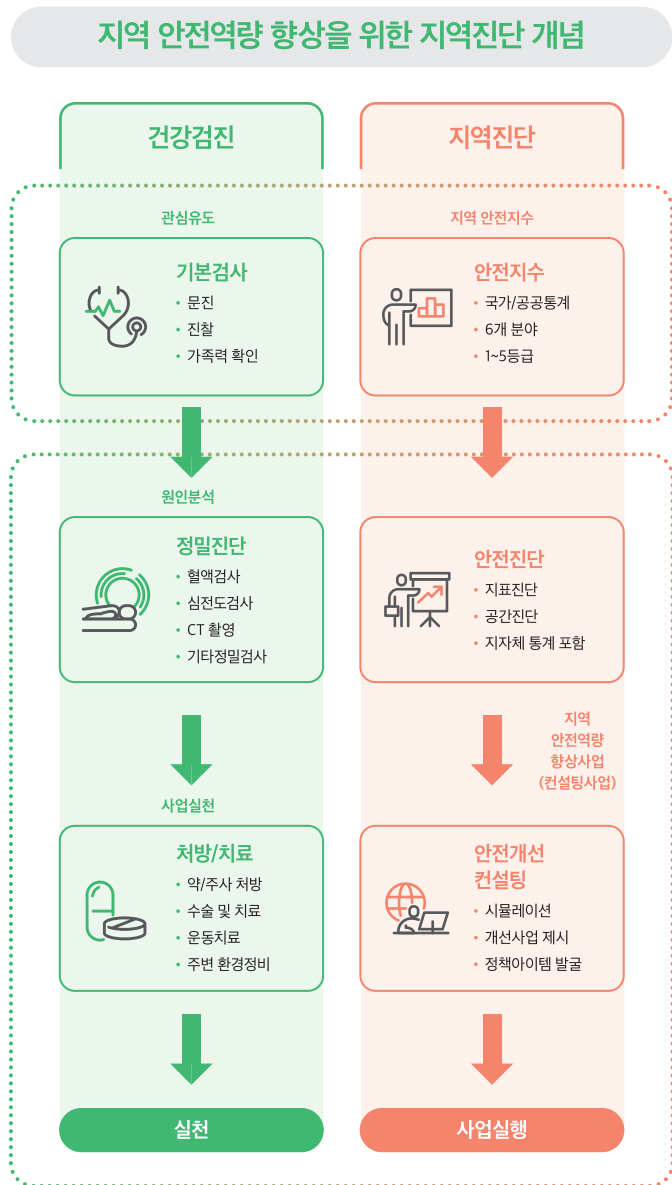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통해 동일 체급의 지자체와 비교하여 우리 지역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산출지표 등을 중심으로 취약하거나 취약 가능성이 있는 요인(인적특성, 지역)을 찾아 지자체 맞춤형 처방인 안전개선사업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 | 지역안전지수가 꾸준히 활용되고, 도시의 안전이 더 튼튼해질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박 |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한 지자체 맞춤형 안전개선사업 발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실천인 후속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 제도 한계, 업무 담당자의 변경 등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실현하고 이를 연속성 있게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

컨설팅 등 기술지원, 시도 컨설팅단 운영 등 지역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윤숙 (프리랜서 작가) 사진 제공 |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의 안전을 가리키는 '나침반',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행정안전부는 매년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 수준을 나타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따라 매년 지역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안전을 가리키는 이 '나침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지역안전지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지역안전지수는 무엇인가요?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등급입니다.
1~5등급으로 나뉘고 1등급일수록 동일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2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사업 등 자율적 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4 지역안전지수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사망·사고 발생결과(위해지표), 위험을 가중시키는 원인(취약지표), 위험을 감소시키는 지자체 노력(경감지표) 및 주민의 노력(의식지표)로 구성됩니다.

$$\text{안전지수} = 100 - (\text{위해지표} + \text{환경지표} - \text{경감지표}) \pm \text{의식지표}$$

$$= 100 - \left\{ + \sum_{i=1}^n (\omega_i \times H_i) + \sum_{j=1}^m (\alpha_j \times C_j) - \sum_{k=1}^o (\beta_k \times M_k) \right\} \pm \sum_{L=1}^p (r_l \times S_l)$$

ω_i : 위해지표별 가중치 α_j : 취약지표별 가중치 β_k : 경감지표별 가중치 r_l : 의식지표별 가중치
 H_i : 위해(harm)지표 점수 C_j : 취약(cause)지표 점수 M_k : 경감(mitigation)지표 점수 S_l : 의식(safety consciousness)지표 점수

5 지표 정의

위해	환경	경감	의식
결과 지표, 감축 필요 분야별 사망자수 및 발생건수 등	위해 발생의 인적, 물적 요인이 되는 사회환경 지표로 관리 필요	위해 발생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노력 지표	위해 발생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주민 노력 지표

⑥ 등급 산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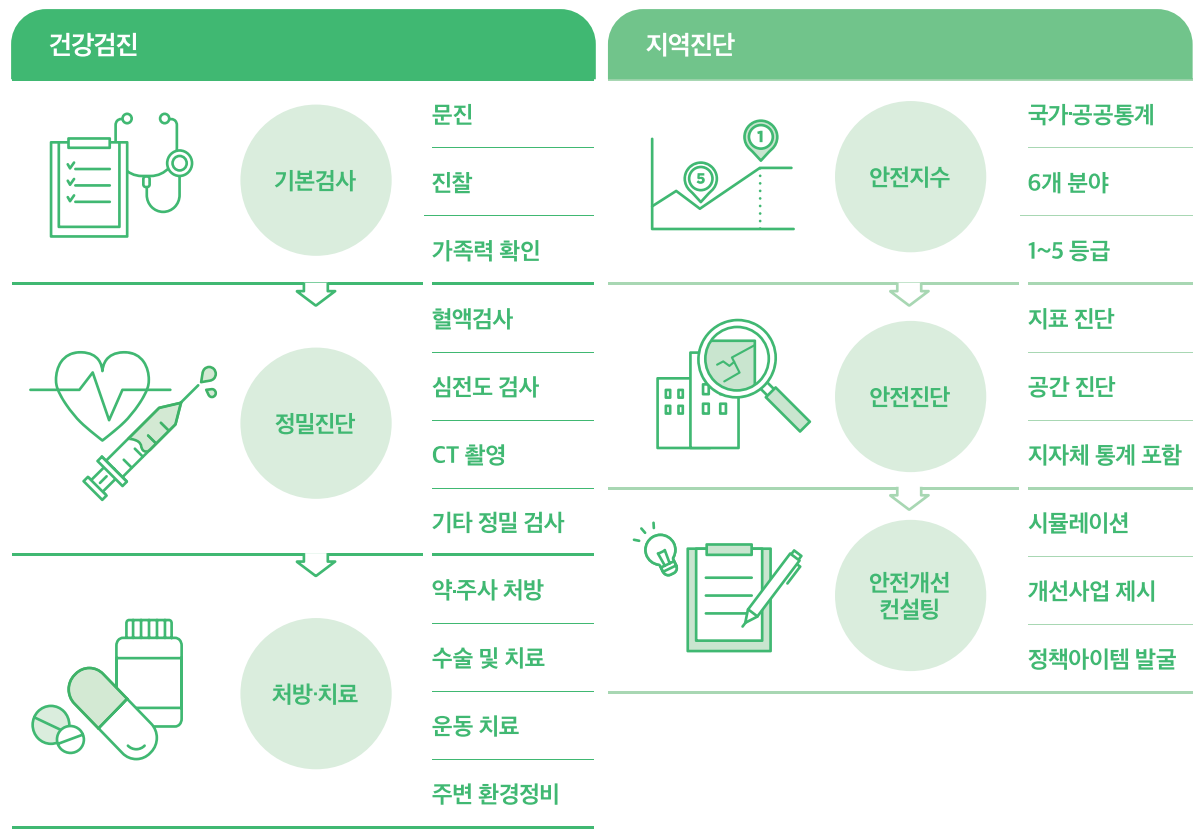
- 모든 지표는 인구 또는 행정구역 면적 등으로 표준화하여 활용됩니다.
- 안전등급은 분야별로 각각 산정되며 종합등급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지역 특성(도시 및 농촌)을 고려하여 특·광역시/도, 시/군/구 그룹별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 전국 지자체 분야별 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로 설정했습니다.

구분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룹별 등급 비율			100%	10%	25%	30%	25%	10%
지자체수	특·광역시/도	특·광역시	8개	1개	2개	2개	2개	1개
		도	9개	1개	2개	3개	2개	1개
	기초	시	75개	7개	19개	22개	19개	8개
		군	82개	8개	20개	25개	21개	8개
		구	69개	7개	17개	21개	17개	7개

* 통계 집단의 각 변수 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

⑦ 지역안전지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지역안전지수는 건강검진을 받듯 6가지 분야를 기반으로 한 통계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안전 수준을 계량화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면 더 건강해지기 위해 치료를 받거나 운동을 하는 것처럼 지역안전지수 역시 결과가 나오면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안전지수라는 결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며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지역안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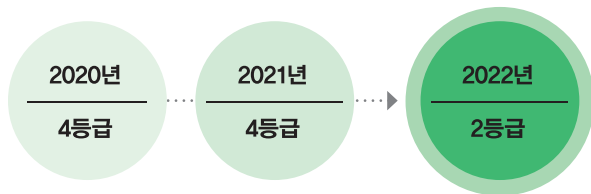
지역안전지수는 당장 내 눈 앞의 안전이 아니다 보니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안전지수가 도입된 후로 우리 동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도시의 안전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 눈 앞에 보이는 사례를 통해 도시의 안전지수를 높여주는 지역안전지수를 확인해 봅시다.

범죄사례

CASE 01 |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는 지역안전지수 도입 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범죄 분야의 안전지수가 2년 만에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인천시 중구 범죄분야 등급 변화



인천 중구 5대 범죄 발생건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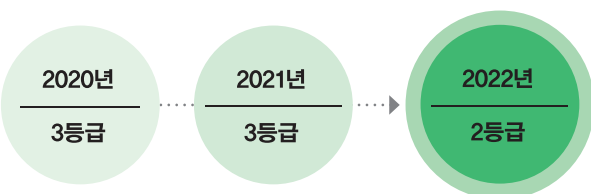
구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총계
'21	4	4	95	659	1,025	1,787
'22	5	3	95	399	881	1,383
차이	(▲1)	(▼1)	(-)	(▼260)	(▼144)	(▼404)

- 빅데이터가 범죄 취약지 예측하면 지구대가 우선 순찰
- 인천중구, '친친 크리에이터' 공모전 개최...학교폭력 예방 인식 제고
- 인천중구 365 생활안전센터, 안전지킴이 역할로 범죄예방 큰 활약
- 이젠 학교폭력 성범죄 예방교육도 온라인으로 진행
- 인천 중구, 주민, 주민·지자체·전문가·기업 등 협력을 통해 '아동문제' 해결 위한 SW솔루션 개발
- '스토킹 범죄 막겠다' 인천 중부서, 홍보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
- 인천 중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실시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 인천 중구,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조명 설치
- 인천중부경찰서, 피서지 성폭력 범죄 선제적 대응

CASE 02 |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는 지역안전지수 도입 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범죄 분야의 안전지수가 2년 만에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울산시 동구 범죄분야 등급 변화



울산 중구 5대 범죄 발생건수 변화

구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총계
'21	2	5	67	485	881	1,440
'22	1	1	53	485	739	1,279
차이	(▼1)	(▼4)	(▼14)	(-)	(▼142)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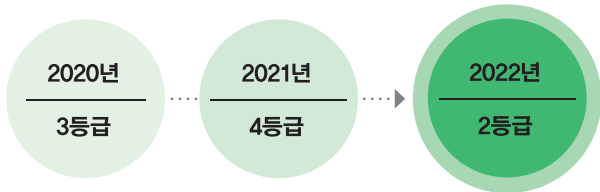
- 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대상 선정
- 동구, 위치정보형 비상벨 추가 설치
- 울산 동구 남목 1·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291억원 투입
- 동구, 신생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준공
- 울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차단 '안심가림막' 설치
- 울산 동구 전하동 안전마을 만들기 협의회 1차 회의 실시
- 울산 동구, 아동범죄 뿌리 뽑을 실효정책 수립으로 아동학대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울산 동구, 휴가철 맞아 숙박업소 방역 불법촬영 집중 점검
- 울산 방어진초, 동구자원봉사센터로부터 '호신용 벨' 지원
- 울산시-경찰청, 아동학대 예방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자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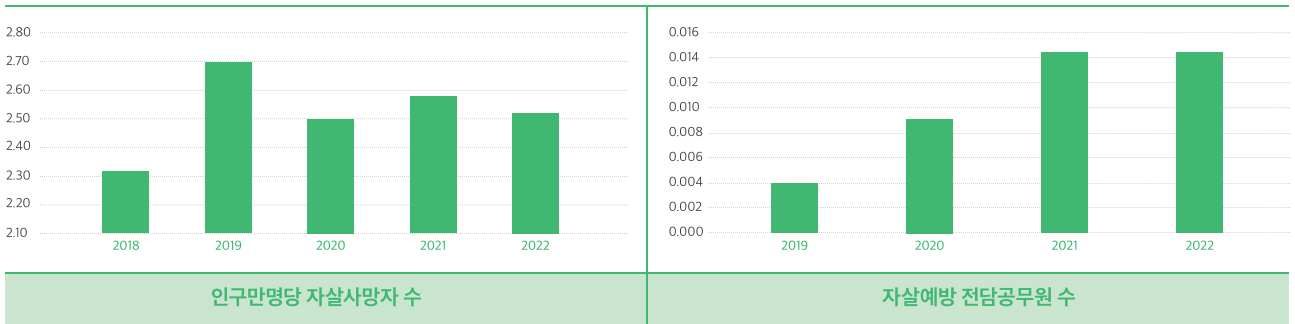
CASE 03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한 결과 2년 만에 자살 분야 2등급에 달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인천시 동구 자살분야 등급 변화



자살사망자 수 16명 감축('21년 773명 → '22년 757명)



○ 대교 투신 자살예방사업

- > 교량 투신사고 대응체계 강화
 - 교량에 생명지킴 전화 설치 및 상시 운영
 - 자살예방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선(난간, 포스터, 판넬 등)

○ 고위험군 조기발견

- > 1차 의료기관 자살예방 역량 강화
 - 약사 게이트키퍼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확대
 - 생명사랑약국 활동물 지원(리플릿, 매뉴얼, 생분해봉투, 현판 등)

○ 정신건강서비스 활성화

-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 근로자 심리상담 및 코칭
- >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 범죄 피해자 및 가족 대상 피해 회복지원
 -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시민 건강 증진



COVER STORY

대전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지역안전지수는 한 도시의 '안전 수준'을 지수화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통계입니다.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우리 지역의 안전 중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보다 안전한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매년 발표되는 지역안전지수를 토대로 취약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더 발전시켜 대전시의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매거진 <대전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는 대전시민들에게 대전시의 지역안전지수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전시의 노력과 계획을 알리고 대전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한 도시안전 개선으로 대전시민들이 언제나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행 대전광역시 안전정책과
기획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디자인·제작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

문의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042-530-3491



본 매거진은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OSAFE)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2가백신의 힘

접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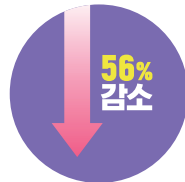
코로나19는 어르신에게 여전히 위험하고, 재감염시 사망위험이 더 높습니다.

일평균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88.8%
(464명 중 4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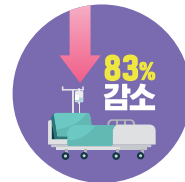
주간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95.4%
(324명 중 309명)

60세 이상에서
재감염시 사망 위험이 1회 감염시 보다 1.72배
높음

효과성과 안전성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 위험 최대 56% 감소
- 기존 백신 접종자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위험 최대 83% 감소
- 기존 백신 접종자 대비



코로나19 후유증인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위험 58% 감소



이상사례 신고율
- 기존백신 대비 1/10 이하

대상 12세 이상 기초접종(1,2차) 완료자

백신 화이자 BA.4/5 | 모더나 BA.4/5 | 화이자 BA.1 | 모더나 BA.1

* mRNA 백신 금기 및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스카이코비원 백신도 가능

간격 마지막 접종일 이후 90일이 되는 날부터 접종 가능